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죽음의 의미 표현 연구

-전통 진채(眞彩) 기법을 활용한 사해(死骸) 표현을 중심으로-

2017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동양화와진채화전공

최정연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강관식

죽음의 의미 표현 연구

-전통 진채(眞彩) 기법을 활용한 사해(死骸) 표현을 중심으로-

A study on meaning expression of death

: An aspect of the expression of the bone using the traditional
deep-color pigment technique

2016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동양화와진채화전공

최정연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강관식

죽음의 의미 표현 연구

-전통 진채(眞彩) 기법을 활용한 사해(死骸)표현을 중심으로-

A study on meaning expression of death
: An aspect of the expression of the bone using the traditional
deep-color pigment technique

위 논문을 미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동양화와진채화전공

최정연

최정연의 미술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국 문 초 록

죽음의 의미표현 연구

– 전통 진채 기법을 활용한 사해표현을 중심으로 –

한성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동양화와진채화전공
최정연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다양하게 존재했다. 그중 무교가 보편적인 한국에서는 인간의 죽음을 부정적인 존재로 보았다. 죽음이란 정말 부정적인 존재일까? 본인의 작품은 기존의 죽음에 대한 통념들을 잊고 죽음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대부분의 철학가들은 죽음을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하였다. 대표적으로 동양 사상가 ‘장자(莊子)’는 죽음을 삶과 대등한 관계라고 하였다. 만약 삶이 부정적인 존재라면 죽음 또한 부정적인 존재인 것이다. 본인의 작품은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음을 ‘사해(死骸)’를 소재로 하여 표현하였다.

사해를 소재로 한 ‘죽음의 의미 표현 연구’는 죽음에 대한 지각, 정립, 승화, 전망의 네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죽음의 지각’에서는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기 위하여 흑백의 사실주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죽음의 지각’의 작품부터는 전통 진채(眞彩) 기법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죽음의 지각’은 죽음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라면 ‘죽음의 정립’은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바라본 것을 정립하는 것이다. ‘죽음의 승화’는 내면적 승화와 외

면적 승화로 나뉜다. 내면적 승화는 장례(葬禮)식을 연회도(宴會圖)로 표현하였으며, 외면적 승화는 사해를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본인의 작품을 바라보는 관객이 죽음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을 변화 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전망’에서는 생령(生靈)을 소재로 하여 죽음이 모든 것의 종말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주요어】 죽음, 사해(死骸), 죽음의 지각, 죽음의 정립, 죽음의 승화, 생령(生靈), 전통 진채(眞彩)기법

목 차

I. 서 론	1
II. 죽음의 지각(知覺)	3
2.1 먹을 활용한 ‘죽음의 지각’ 표현	3
2.2 진채 기법을 활용한 ‘죽음의 정립(定立)’ 표현	5
III. 죽음의 승화(昇華)	8
3.1 능행도(陵行圖) 재구성을 통한 ‘죽음의 내적 승화’ 표현	8
3.2 사해(死骸)를 제재(題材)로 한 ‘죽음의 외적 승화’ 표현	14
IV. 죽음에 내재된 생령(生靈)의 전망(展望)	24
4.1 사해와 생령을 제재로 한 ‘생령의 전망’ 표현	24
V. 결 론	38
참고문헌	39
ABSTRACT	41

그 림 목 차

<그림 1> 죽음을 바라보다, 한지에 먹, 66×134cm, 2013	3
<그림 2> 하루 같은 삶과 죽음 1, 비단에 천연채색, 50×75cm, 2014	5
<그림 3> 하루 같은 삶과 죽음 2, 비단에 천연채색, 50×75cm, 2014	6
<그림 4> 죽음을 위하여, 비단에 천연채색, 160×108cm, 2013	10
<그림 5> 사해의 빛_성찰, 한지에 채색, 40×40cm, 2013	15
<그림 6> 사해의 빛_자아, 한지에 채색, 40×40cm, 2013	16
<그림 7> 사해의 빛_함정, 한지에 채색, 40×40cm, 2013	18
<그림 8> 사해의 빛_구원, 한지에 채색, 40×40cm, 2013	19
<그림 9> 사해의 빛_유대, 한지에 채색, 40×40cm, 2013	20
<그림 10> 사해의 빛_휴식, 한지에 채색, 40×40cm, 2013	21
<그림 11> 사해의 빛_존중, 한지에 채색, 40×40cm, 2013	22
<그림 12> 사해의 빛_반성, 한지에 채색, 40×40cm, 2013	23
<그림 13> 당신에게 주다, 비단에 채색, 51×45cm, 2016	24
<그림 14> 나에게 품다, 비단에 채색, 63×45cm, 2016	27
<그림 15> 생령을 안아, 비단에 채색, 45×55cm, 2016	29
<그림 16> 달빛 스며, 비단에 채색, 63×45cm, 2016	31
<그림 17> 전하다, 비단에 채색, 63×45cm, 2016	33
<그림 18> 달과 꽃에 사해를 적셔, 비단에 채색, 57×50cm, 2016	35
<그림 19> 천공의 빛, 비단에 채색, 60×73cm, 2016	37

I. 서 론

고대사회에서는 죽음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였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 죽음을 받아들이는 인식도 변하였는데, 문명사회로 접어들면서 죽음의 부정과 왜곡된 공포로 인간을 고독과 절망 속에 빼뜨렸다. 매체가 다양하게 발전한 현대에서는 죽음의 이미지가 보편화되었다. 특히 영화나 텔레비전 등과 같은 영상 매체에 익숙한 젊은 사람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죽음의 의미를 받아들였다.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외면하기보다는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죽음을 부정적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은 존재한다.

죽음이란 정말 부정적인 존재일까? 과거 많은 철학가들은 죽음을 부정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장자(莊子, 369–289)¹⁾는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삶은 죽음의 동반자요, 죽음은 삶의 시작이니, 어느 것이 근본임을 누가 알랴? 삶이란 기운(氣運)의 모임이고 기운이 모이면 태어나고 기운이 흩어지면 죽는 것인데 이같이 사(死)와 생(生)이 같은 짹을 만나면 무엇을 조심하랴. 내 생애를 잘 지냈으면 죽음 또한 의연하게 맞이해야 한다." 장자의 말에 의하면 삶과 죽음은 대등한 관계이다. 만약 죽음이 부정적인 존재라면 삶 또한 부정적인 존재인 것이다. 본인 또한 삶과 죽음을 대등한 존재로 인식하면서 죽음의 상징인 사해(死骸)²⁾를 소재로 사용해 작품세계를 그려나간다.

강아지의 죽음을 통해 기존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했다. 본인의 작품들은 필립 아리에스(P. Aries)가 말한 '금지된 죽음'(필립 아리에스, 1983)³⁾과 같은 기존의 죽음에 대한 통념들을 잊고 죽음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죽음을 지각(知覺)하였다. '죽음의 지각'에서는 죽음에 대한 편견 없이 죽음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고찰하였다. '죽음의 지각'부분에 해당하는 <그림 1>의 '죽음을 바라보다'에서는 죽음에 대한 객관적인 고찰을 표현하기 위해 흑백의 사실주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1) 장자(莊子, 369–289)의 도교적 입장의 죽음관은 중국의 민간신앙을 기본으로 하는 신선설(神仙說)을 중심으로 장생불로를 주목표로 하는 현세 이익적인 종교이다. 도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변화의 일부로서 도(道)에 의하여 운행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2) 사해(死骸)란 죽은 뒤의 육신 혹은 뼈를 말한다.

3) 필립 아리에스. (1983). 『죽음의 역사』. 동문선, pp.70–86.

두 번째로 죽음을 정립(定立)하였다. 탄생은 죽음을 내포하고 있고 죽음은 탄생의 밑거름이 된다. 본인은 ‘죽음의 정립’에서 탄생과 죽음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대대(對待)(이시우, 2013)⁴⁾관계라 정의하였다. <그림 2>의 ‘하루 같은 삶과 죽음’과 <그림 3>의 ‘하루 같은 삶과 죽음 2’에서는 색과 소재를 상징적으로 사용하여 낮과 밤의 대대관계를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세 번째로 죽음을 승화(昇華)시켰다. 죽음의 승화시키는 작업은 ‘내면적 승화’와 ‘외면적 승화’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내면적 승화’에서는 죽음을 한스럽고 슬픈 것(서현, 2015)⁵⁾으로 인식하는 기준의 장례를 연회(宴會)로 표현하였다. 장례 연회도(葬禮宴會圖)는 ‘화성원행도병⁶⁾’의 8폭중 한폭인 ‘봉수당진찬도⁷⁾’를 새롭게 재구성하여 표현하였다. ‘외면적 승화’에서는 죽음의 상징인 ‘사해’를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화려한 문양을 넣은 사해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껴지기 보다는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느껴진다. 이러한 작품 창작을 통해 죽음에 대한 인식을 두렵고 한스러운 것에서 즐겁고 아름다운 것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지각, 정립, 그리고 내외적 승화를 통해 본인이 표현하고자 한 죽음은 죽음이 모든 것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생령(生靈)⁸⁾을 품고 있는 것이다. 결국 죽음은 모든 것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씨앗인 것이다. 본인의 작품에서는 죽음에 내포된 새로운 시작의 씨앗을 ‘생령(生靈)’으로 표현하였다. 생령의 전망(展望)⁹⁾은 죽음의 상징인 사해와 생령을 상징하는 각각의 소재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4) 이시우. (2013). 『주역의 사생관(死生觀)에 관한 연구』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66~70.

5) 서현. (2015). 『죽음 이해의 유형론 중 기독교적 죽음 이해 연구 : 기독교적 장례를 위한 제언』 .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2.

6) 『화성원행도병』 은 정조가 1795년 2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어머니 혜경궁 홍씨(1735~1815)를 모시고 부친 사도세자思悼世子(1735~1762)의 원소 현릉원顯隆園에 행차한 뒤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던 일을 그린 것이다. 1795년은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의 탄신 일주갑이 되는 해로 정조가 현릉원 전배를 마친 뒤 화성 행궁에서 진찬례를 베풀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세심한 배려와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졌다. 이를 기념하여 행사의 도설図說을 김홍도에게 제작하게 하고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 에 그대로 담았다.

7) 정조(正祖, 1752~1800)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탄신 회갑기념잔치를 그린 것이다.

8) 생령(生靈)이란 ‘생명’을 이르는 말. 네이버 국어사전.

9) 전망(展望)이란 앞날을 헤아려 내다봄. 또는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 네이버 국어사전.

II. 죽음의 지각(知覺)

2.1 먹을 활용한 ‘죽음의 지각(知覺)’ 표현



그림 1. <죽음을 바라보다> 한지에 먹, 66×134cm, 2013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음 그 자체이다. 지혜롭지 않음에도 지혜로운 듯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이 죽음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면서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죽음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죽음이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최악의 것이라며 두려워한다. 이는 알고 있는 것이 없음에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비난받을 만하다(오진탁, 2007).¹⁰⁾

필립 아리에스(P. Aries)가 말한 20세기의 ‘금지된 죽음’(필립 아리에스, 1983)¹¹⁾이 21세기인 현재에도 여전히 존재해왔다. 필자의 유년 시절 또한 죽음은 언제나 외면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왔다.

죽음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20살 때였다. 10년 넘게 키우던 강아지가 병으로 죽게 된 것이다. 죽음이 가까워진 것을 알았는지, 힘없이 지긋이 나를 바라보던 강아지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정작 강아지에게 죽음이

10) 오진탁. (2007). 『마지막 선물』 . 세종서적, p.92.

11) 필립 아리에스. (1983). 『죽음의 역사』 . 동문선, pp.70–86.

찾아 왔을 때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지금까지 죽음은 언제나 슬프고 두려운 존재로 인식해왔다. 그런데 죽음을 직접 목격하는 순간 죽음에 대한 이전의 나의 생각은 완전히 전복(顛覆)되었다. 죽음을 맞이한 강아지가 불행해보이지 않았다.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는 듯이 편안히 눈을 감고 있었다. ‘죽음의 슬픔과 두려움’이란 죽음을 당한 객체가 불행해지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당한 객체와 더 이상 만날 수 없기에 슬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생각은 죽음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다시 한 번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강아지의 죽음’이란 경험을 통해 죽음에 대한 나의 인식이 올바르지 않다고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첫 작품 <그림 1>의 ‘죽음을 바라보다’는 감정의 배제에서 시작한다. 해골을 과장하거나 꾸미지 않고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해골을 바라보는 여자의 얼굴을 무감각하게 표현함으로써 감정이 섞이지 않은 시선으로 죽음을 바라보는 이미지를 연출했다. 감정의 배제를 극대화 하기위하여 다양한 색상을 쓰지 않고 단색을 사용했다. 흑백이 주는 차가운 이미지는 감정의 배제를 극대화 시켜준다. 즉 <그림 1>은 죽음을 슬픔과 두려움 같은 감정을 느끼는 대상이 아닌 사유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자화상인 것이다.

깊은 먹의 발색을 위하여 3장을 합친 순지를 사용하였다. 순지 한 장은 매우 얇기 때문에 흡수 할 수 있는 안료의 양이 적다. 입자가 가벼운 유기안료 일지라도 색의 단계를 풍부하게 하기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안료를 흡수할 수 있는 두께가 필요하다.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두꺼운 한지들도 있다. 이러한 한지들은 결 사이의 빈 공간이 넓기 때문에 세밀한 표현을 할 수 없다. 결이 고운 순지도 그 사이 미세한 빈 공간은 존재한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세밀한 그림을 그리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종이를 두드려 도침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교반수를 만들어 순지에 바르는 것이다. 순지 사이의 빈틈을 교반수가 채워줌과 동시에 안료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림 1>에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 하였다.

2.2 진채 기법을 활용한 ‘죽음의 정립(定立)’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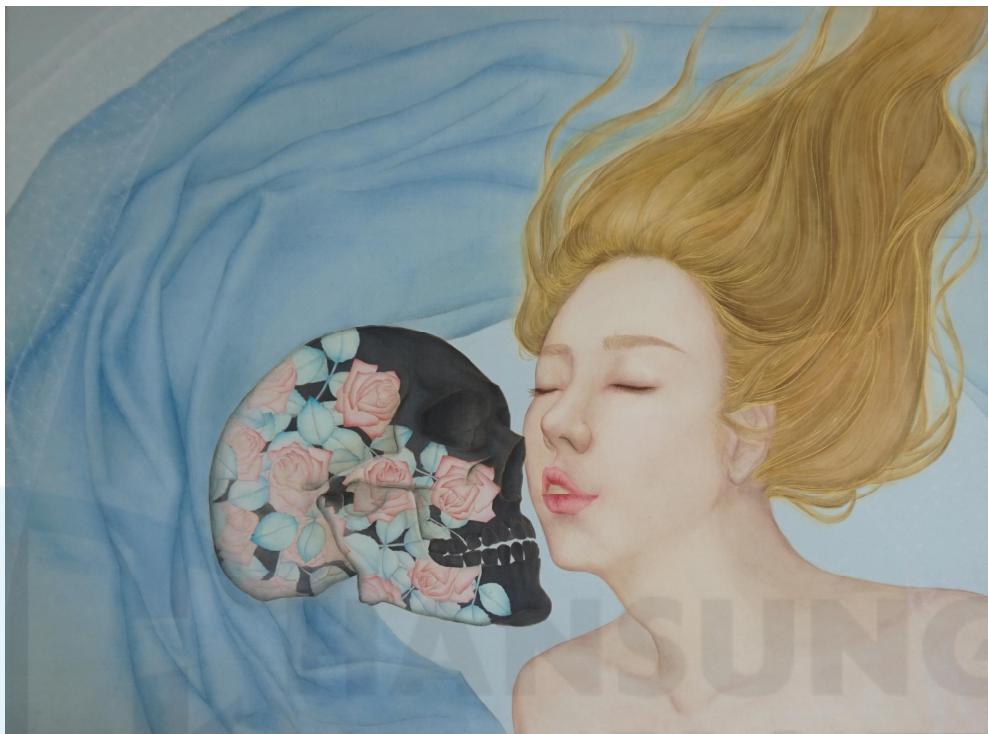


그림 2. <하루 같은 삶과 죽음 1> 비단에 천연채색, 50×75cm, 2014

‘생생(生生)’이란 주역에서 생장수장(生長收藏)의 재생의 순환을 표현한 개념이다. 죽음에는 탄생의 기운이 들어있다. 죽음은 ‘생생’의 과정에서 새 생명을 기르는 거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양의 변화 속에서 소멸과 생성은 동시적이다. 음양 생성론에서 소멸은 동시에 생성을 내포한다(이시우, 2013).¹²⁾ 죽음과 탄생이라는 대립되어 보이는 두 개의 개념이 서로 대대(對待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낮이 가면 밤이 되고 밤이 가면 다시 낮이 된다. 낮에는 생존을 위해 일해야 하고 밤에는 낮에 일하기 위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 우리에게 낮과 밤은 모두 소중하다. 삶과 죽음 역시 이와 같다. 식물의 죽음은 초식동물을 살게 해준다. 초식동물의 죽음은 육식동물을 살게 해준다. 모든 생물의 죽음은 식물을 살게 해준다. 죽임을 당한 객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죽음은 계속해서 새로운 탄생

12) 이시우. (2013). 『주역의 사생관(死生觀)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pp.102-103.



그림 3. <하루 같은 삶과 죽음 2> 비단에 천연채색, 50×75cm, 2014

을 야기 시킨다. 낮과 밤이 있어야 하루가 되듯이 삶과 죽음이 있어야 완전한 삶이 되는 것이다.

<그림 2>의 ‘하루 같은 삶과 죽음 1’과 <그림 3>의 ‘하루 같은 삶과 죽음 2’는 낮과 밤이 만나 하루를 만들 듯 삶과 죽음이 만나 진정한 삶을 만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하늘을 연상시키는 하늘 빛 배경색은 하루를 상징한다. 하늘빛 사이에 검은 해골과 밝게 빛나는 여자가 있다. 밝게 빛나는 여자는 찬란한 아침의 색과 같고 칠흑 같이 어두운 검정색 해골은 어두운 밤의 색과 같다. 해골에 그려진 장미는 죽음이 탄생을 야기 시킨다는 것을 암시한다. 마지막으로 푸른 천과 사라로 여자와 해골을 감싸듯 둘러주었다. 몸을 감싸는 천과 사라는 성화와 불화에 자주 등장하는데, 그 존재만으로도 성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그림 2>의 ‘하루 같은 삶과 죽음 1’과 <그림 3>의 ‘하루 같은 삶과 죽음 2’는 해골과 인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이 촘촘한 3합 비단을 사용하였다. 3합 이상의 더 촘촘한 견들도 있는데, 배채 기법을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으로 사용하

지 않았다. 배채 기법의 활용은 매우 다양한데, <그림 2>와 <그림 3>에서는 맑고 안정감 있는 색의 조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림 2>를 예로 들면 명도 조절을 호분이 아니라, 물로 조절하게 된다. 그런데 하늘색과 같은 밝은 색은 물의 비율이 높고 안료의 비율이 낮다. 반면 검은색과 같은 어두운 색은 물의비율이 낮고 안료의 비율이 높다. 한 화면에 급격한 안료의 비율차이는 자칫 잘못하면 그림의 조화를 깨기 쉽다. 이러한 안료의 비율차이를 줄이기 위해 배채 기법을 사용했다. 밝은 색은 비단 뒤에 호분 등과 같은 무기 안료를 칠함으로써 안료의 비율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비단 뒤에서 호분을 칠한다 해도 비단에 한번 거쳐 색이 발색됨으로 그림이 탁해지지 않는다.



III. 죽음의 승화

3.1 능행도 재구성을 통한 ‘죽음의 내적 승화(昇華)’ 표현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일까? 아니다. “죽음이 선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생의 종말이 아니고 저승길로 가는 다른 차원의 시작이다(배영기, 1992)”¹³⁾ 이처럼 죽음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입문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장례식은 다른 생의 시작으로서의 입문식인 것이다.(조복란, 2001)¹⁴⁾ 만약 이처럼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면 우리는 축하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는 죽음이란 ‘슬픈 것’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결국 한 생명의 죽음을 바라보는 타인의 눈물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언제나 부정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진다.

필자는 생명의 죽음을 바라보는 타인의 세상이 아닌 죽음을 맞이한 주체의 세상의 장례식¹⁵⁾을 그렸다.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우리는 그 미지의 공간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알지 못한다. 단지 필자의 그림을 통해 죽음을 맞이한 주체의 세상이 즐겁고 행복한 공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싶었다.

<그림 4>의 ‘죽음을 위하여’의 모태가 되는 ‘화성원행도병’중 한 폭인 ‘봉수당진찬도’를 장례식으로 재구성하였다. ‘봉수당진찬도’는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탄신 60주년을 기념하는 잔치를 그린 것이다. 정조는 어머니의 회갑기념잔치를 대비해서 장수를 기원한다는 의미로 봉수당이라 이름 붙였다(이미연, 2014).¹⁶⁾ ‘봉수당진찬도’는 혜경궁의 봉수당을 중앙에 두고, 정조의 어좌를 원편에 두어, 이 것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위한 행사라는 것을 표현하

13) 배영기. (1992). 『죽음학의 이해』 . 서울: 교문사. p.456

14) 조복란. (2001). 『현대 한국 사회의<죽음>대응양상에 관한 사회학적 고찰 : '장례식'의 변화 와 '<죽음>의 처리'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5.

15) 여기서 장례식이란 <3.1 죽음의 내면적 승화(昇華)>의 첫 문단에서 언급한 ‘다른 생의 시작으로서의 입문식’을 말하는 것이다.

16) 이미연. (2014). 『화성원행을묘정리의궤 반차도연구』 . 경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6.

였다. 또한 봉수당 진찬은 혜경궁 홍씨와 궁궐여인들을 위한 내연과 문무백관을 위한 외연이 함께한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다(최의숙, 2016).¹⁷⁾ ‘봉수당진찬도’에서 중앙문과 좌익문 사이 공간을 확대하였는데, 이것은 봉수당진찬이 왕실의 축제이면서 백성과 함께하는 행사라는 것을 강조한 것(유재빈, 2016)¹⁸⁾이다.

‘봉수당진찬도’를 새로운 의미로 재구성한 <그림 4>의 ‘죽음을 위하여’를 자세히 보면 춤을 추는 무희들 가운데 검은색 사라를 두른 해골이 죽음을 맞이한 주체이다. 화면의 곳곳을 찾아보면 이곳이 이승이 아닌 저승임을 알 수 있다. 장례식을 축하하는 무희들과 장례식을 도우는 하녀, 신사 그리고 장례식을 방문한 저승사자까지 모두 살아있는 육체가 아닌 해골의 몸이다. 몇몇 저승사자는 낫 대신 붉은 석류를 들고 있는데, <하데스의 페르세포네 납치사건>¹⁹⁾의 석류를 차용했다. 또한 신선들의 과일로 널리 알려진 복숭아와 불교의 연꽃 등을 그려 넣는 등 다양한 종교의 상징을 수용했다. 화면의 하단부에는 죽음의 주체가 황천 강을 건널 때 탄 옛목이다. <그림 4>의 배경은 붉은 색인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낫과 밤의 경계인 노을로 표현하였다.²⁰⁾ 행궁 안에 보이는 병풍의 그림의 배경은 완전한 밤이다. 죽음의 주체가 앞으로 속할 세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17) 최의숙. (2016). 『화성원행도병에 나타난 꽃장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raditional flower through Folding Screen King Jeongjo's Procession to his farther's tomb』 .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38-39.

18) 유재빈. (2016). 『정조대 궁중화화 연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328.

19) <하데스의 페르세포네 납치 사건>이란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아내로 삼기위해 지하세계로 납치했는데, 페르세포네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지하세계의 음식 ‘석류’를 먹어버렸다. 지하세계의 음식을 먹게 되면 영원히 지하세계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페르세포네는 지하세계를 떠나지 못했다.

20) <2.2 죽음의 정립(定立)> 첫 문단에서 밤과 낮을 죽음과 삶에 비유하여 그 두 개가 다르지 않음을 서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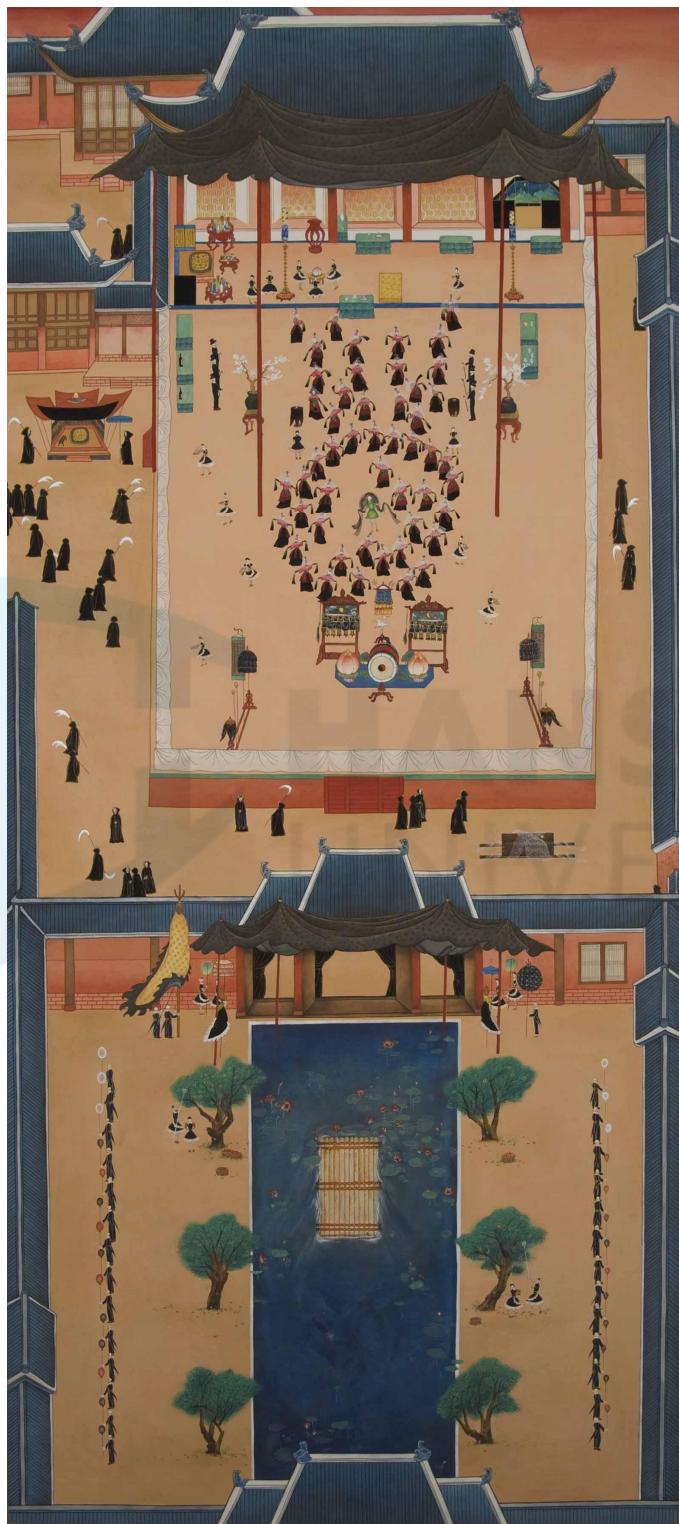


그림 4. <축음을 위하여>

비단에 천연채색,

160×108cm, 2013



그림 4. 부분도 1
<죽음을 위하여>
비단에 천연채색,
160×108cm,
2013



그림 4. 부분도2 <죽음을 위하여> 비단에 천연채색, 160×108cm, 2013



그림 4. 부분도 3 <죽음을 위하여> 비단에 천연채색, 160×108cm,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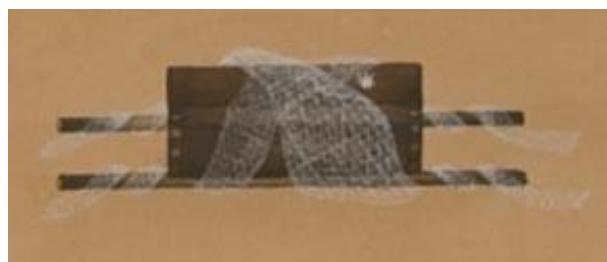


그림 4.1 부분도 4 <죽음을 위하여> 비단에 천연채색, 160×108cm, 2013



그림 4 부분도 5 <죽음을 위하여>
비단에 천연채색, 160×108cm, 2013



그림 4 부분도 6 <죽음을 위하여>
비단에 천연채색, 160×108cm, 2013



그림 4 부분도 7 <죽음을 위하여> 비단에
천연채색, 160×108cm, 2013



그림 4 부분도 8 <죽음을 위하여> 비단에
천연채색, 160×108cm, 2013



그림 4 부분도 9
<죽음을 위하여>
비단에 천연채색,
160×108cm, 2013



그림 4 부분도 10
<죽음을 위하여>
비단에 천연채색,
160×108cm, 2013



그림 4 부분도 11
<죽음을 위하여>
비단에 천연채색,
160×108cm, 2013



그림 4 부분도 12
<죽음을 위하여>
비단에 천연채색,
160×108cm, 2013

3.2 사해(死骸)를 제재(題材)로 ‘죽음의 외적 승화’ 표현

죽음의 상징인 사해(死骸)는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대표적인 예로는 마카브르(Macabre)가 있다. 마카브르는 죽음 이후에 시작되어 해골 상태에서 멈춘다. 마카브르 도상은 부패와 연관된 역겹고 혐오스러운 이미지들이 많았다²¹⁾. 상징적으로 표현된 죽음이 인간들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빼앗거나 신체가 부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나타낸 것들이 죽음의 표상들 중 가장 흔한 유형이 되었다. 이것이 트라지(transi)²²⁾로,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나타났던 마카브르 도상들 중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오세미, 2013)"²³⁾.

그러나 본인의 작품 ‘사해의 빛’ 시리즈²⁴⁾에서는 사해를 아름다운 존재로 인식하고 표현하였다. 비 생명체인 사해를 아름다운 생명체로 표현하기 위하여 초현실주의자들의 표현을 가져왔다. 초현실주의자들은(할 포스터, 2005)²⁵⁾ 실재와 허구를 구분하지 않고 생명과 비생명 사이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또한 기호가 지시대상의 지위를 빼앗거나 심리적 실재가 물리적 실재의 지위를 빼앗았다. 이런 상황이 화폭에서 펼쳐질 때 ‘초현실’이 경험된다고 한다(오세미, 2013)"²⁶⁾. 이러한 초현실의 경험은 프로이트(S. Freud)가 말한 ‘언캐니(Uncanny)'²⁷⁾한 뒤섞임을 보여준다.(S. Freud, 2003)²⁸⁾ 결국 비 생명체인 사해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다.

21) 필립 아리에스(P. Aries), 고선길 옮김. (2004). 『죽음 앞의 인간』 . 새물결, p.212.

22) 트란지란 중세·르네상스 시대의 석관 위에 조각된 사체상(死體像. 정지영, 홍재성. (2003) 『프라임 불한사전』 . 두산동아, p.2682.

23) 오세미. (2013). 『유한함의 공포: 재현 불가능한 이미지의 재현』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9.

24) ‘사해의 빛’ 시리즈는 <그림 5>~<그림 20>까지이다.

25) 할 포스터, 전영백과 현대미술연구팀 옮김. (2005). 『욕망, 죽음 그리고 아름다움』 . 아트북스, p.38.

26) 오세미. (2013). 『유한함의 공포 : 재현 불가능한 이미지의 재현』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29.

27) 지그문트 프로이트(S. Freud), 정장진 역. (2003). 『예술, 문학, 정신분석』 . 열린책들, p.412.

28) 언캐니란 “어떠한 존재가 겉으로 보아서는 꼭 살아 있는 것만 같아 혹시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의심이 드는 경우, 혹은 반대로 어떤 사물이 결코 살아 있는 생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영혼을 잃어버려서 영혼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경우”를 규정하는 말로 사용하였다. 지그문트 프로이트(S. Freud), 정장진 역. (2003). 『예술, 문학, 정신분석』 . 열린책들, p.412.



그림5. <사해의 빛_성찰> 한지에 채색, 40×40cm, 2013

<그림 5>의 ‘사해의 빛_성찰’과 <그림 6>의 ‘사0의 빛_자아’는 ‘사해의 빛’ 시리즈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작품이다. 두 작품은 전시 할 때 서로 마주 보게 놓는다. 각각의 그림이지만 두 그림은 전시를 통해 하나가 된다. <그림 5>와 <그림 6>은 생김새와 구도가 대칭으로 되어있다. <그림 1>의 ‘죽음을 바라보다’에서 살아있는 여자가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그림 5>와 <그림 6>은 죽음이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다. 즉 서로 다른 속성의 존재를 바라보며 지각하는 것이 아닌, 같은 속성의 존재를 서로 바라보며 지각하는 것이다. 같은 속성의 존재가 서로 바라보는 모습은 자아성찰을 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죽음을 상징하는 사



그림 6. <사해의 빛_자아> 한지에 채색, 40×40cm, 2013

해가 자아성찰을 한다는 것은 종교적 의미의 죽음관과는 다른 의미가 있음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죽음을 넘어섰을 때 모든 깨달음을 얻는다고 표현한다. 종교적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림 5>와 <그림 6>은 매우 이상한 그림이 된다. 모든 깨달음을 얻은 사해는 더 이상 스스로에게 궁금한 것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그림 5>와 <그림 6>은 입을 열고 스스로에게 말을 건다. 이러한 연출을 통해 본인은 종교적으로 바라본 죽음관과는 상이한 죽음관을 표현하고자 했음을 시리즈의 서두에서 언질을 주고 싶었다.

거울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형상을 표현 했다는 것은 <그림 5>와 <그림 6> 둘

중 하나의 사해는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실존하는 사해와 거울에 비친 실존하지 않는 사해를 나타내기 위해 두 가지의 장치를 해두었는데, 첫 번째는 채도의 차이이다. 실존하는 사해<그림 5>는 실존하지 않는 사해<그림 6>보다 채도가 높다. <그림 5>와 <그림 6>을 비교해 보면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검정색 배경위의 금니이다. 실존하는 사해<그림 5>의 배경에는 금니로 문양을 넣었다. 그리고 실존하는 사해가 바라보는 실존하지 않는 사해<그림 6>에는 금니를 넣지 않았다. 전 문단에서 ‘자아성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본디 자아성찰이란 내면의 나를 들여다보는 행위를 말한다. 때문에 오로지 정신의 개념으로써의 나만이 존재한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배경의 유무로 표현한 것이다.

사해의 빛을 표현하기 위해 <그림 5>와 <그림 6>에서는 분채와 석채의 성질을 이용하였다. 분채는 빛을 흡수하는데, 그 중 검은색 분채는 가장 많은 빛을 흡수 한다. 반면 석채는 빛을 난반사한다. 빛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검정색 분채 위에 빛을 난반사하는 석채로 사해의 반사광과 문양을 채색함으로써 영롱한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인다. 극적인 대비효과를 위해 배경의 검정색 분채는 약 5번 겹칠 하였다. 한 번에 두겹게 칠하는 것보다 얇게 여러 번 겹칠 하는 것이 더욱 깊은 발색을 내기 때문이다. 반면 사해의 문양은 최대한 적은 횟수의 겹침을 하였다. 여러 번 겹칠 하는 것이 색을 깊어 보이게 할 수는 있으나 맑은 느낌을 주기위해서는 최대한 겹침을 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그림 5>와 <그림 6>을 시작으로 ‘사해의 빛’ 시리즈는 사해의 자아성찰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나간다. 그래서 ‘사해의 빛’ 시리즈에 나오는 사해들은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닌, 여전히 살아있고 번뇌하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구원받기도하며, 때로는 좌절하기도 한다. “죽음이라는 관념이 살아 있는 사해로 표현되어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의 구분이 모호하게 함(할 포스터, 2005)²⁹⁾으로써 어떠한 존재가 곁으로 보아서는 꼭 살아 있는 것만 같아 혹시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의심이 드는(S. Freud, 2003)”³⁰⁾ 언캐니한 결과를 불러일으킨다.

29) 할 포스터, 전영백과 현대미술연구팀 옮김. (2005). 『욕망, 죽음 그리고 아름다움』 . 아트북스, p.38.

30) 지그문트 프로이트(S. Freud), 정장진 역. (2003). 『예술, 문학, 정신분석』 . 열린책들, p.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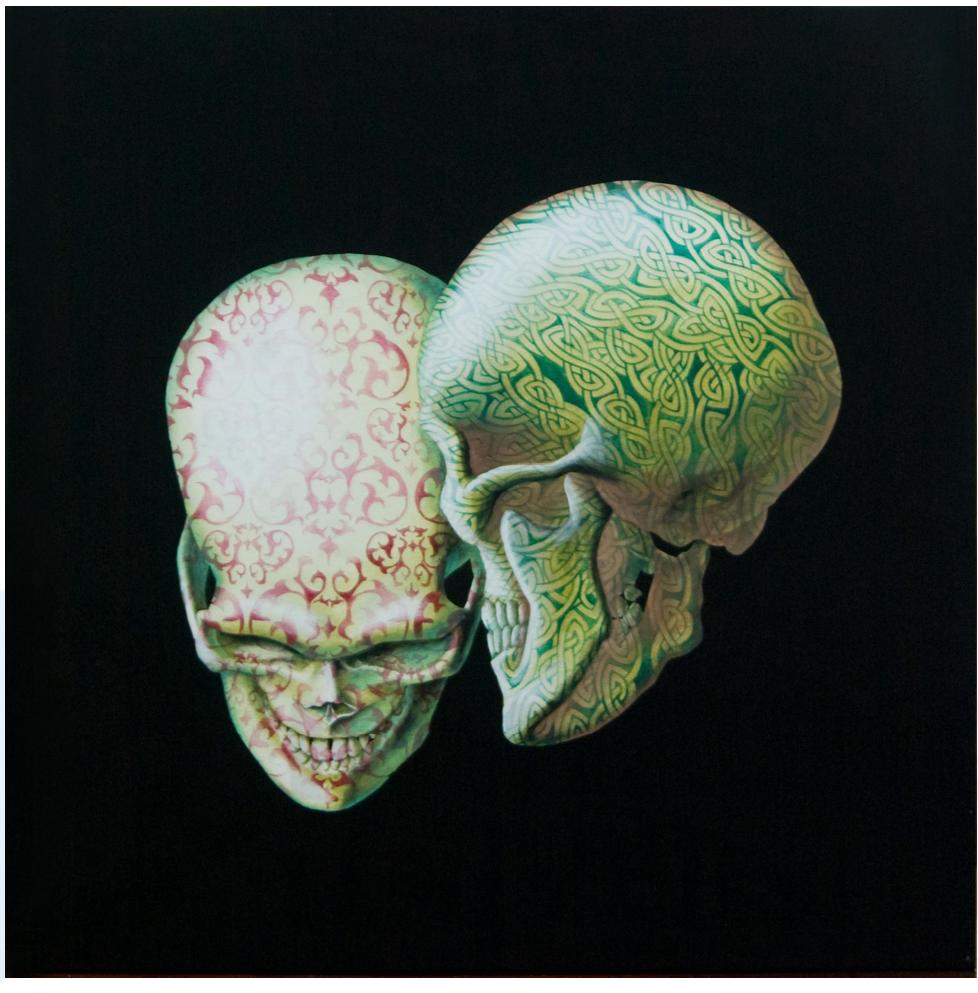


그림 7. <사해의 빛_함정> 한지에 채색, 40×40cm, 2013

<그림 7>의 ‘사해의 빛_함정’은 이간질이라는 함정(陷寢)을 표현했다. 빨간색 문양의 사해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이야기를 듣고 있다. 초록색 문양의 사해는 은밀하게 빨간색 사해의 귀 가까이에 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꼬여버린 마음을 가진 이간질의 주체가 되는 초록색 해골의 문양은 밧줄의 모양을 도식화했다. 초록색 사해에게 이야기를 듣고 이간질의 객체가 되는 빨간색 해골의 문양은 악마의 형상을 도식화했다. 이간질의 주체와 객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다른 긍정적인 사해의 이미지와 차별화 하기위해 사해의 문양을 분채로 채색하였다.

<그림 8>의 ‘사해의 빛_구원’은 <그림 7>의‘사해의 빛_함정’에서 이간질의 대상



그림 8. <사해의 빛_구원> 한지에 채색, 40×40cm, 2013

이 되어 고통 받는 사해를 다른 사해가 다가와 구원(救援)해주 것을 표현했다. 구원자로써의 사해는 아름다운 꽃문양과 빛의 형상을 도식화한 십자모양을 바둑판의 형태로 반복하여 문양을 넣었다. 빛의 형상과 봄날의 햇살을 가득 머금은 꽃의 형상은 구원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보여준다. 화면의 구도를 신화의 한 장면처럼 구원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좌절하는 사해를 구원하는 모습으로 표현했다. 또한 구원자의 성스러움을 극대화 하기 위해 석채를 두껍게 쌓았다.



그림 9. <사해의 빛_유대> 한지에 채색, 40×40cm, 2013

<그림 9>의 ‘사해의 빛_유대’는 서로 다른 사해가 결합하게 되는 유대(紐帶)를 표현했다. 왼쪽과 오른쪽 사해문양의 밀도, 색, 채색된 안료까지 전부 다르고, 사해의 크기도 현격하게 차이 난다. 아직 덜 성숙한 듯 보이는 보라색문양의 사해는 가벼운 꽃바람으로 문양을 넣었다. 가벼운 꽃바람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유기안료인 봉채를 사용하여 채색하였다. 반면 성숙한 듯 보이는 파란색문양의 사해는 자잘하고 복잡한 심경이 느껴지는 기하학적 문양을 넣었다. 복잡한 심경의 무거운 마음을 석청을 사용해 무겁고 차갑게 표현하였다. 이렇게 전혀 다른 사해이지만 머리를 마주 함으로써 서로 유대가 이어난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그림 10. <사해의 빛_휴식> 한지에 채색, 40×40cm, 2013

<그림 10>의 ‘사해의 빛_휴식’은 슬픔에 가득 찬 사해가 휴식(休息)을 위하여 세상과 단절한 것을 표현했다. 우리는 흔히 드라마에서 슬픔에 빠진 주인공이 침대에 누워 팔을 들어 올리고 두 눈을 가리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시각을 차단하는 행위는 슬픈 일이 가득 한 세상과의 단절을 원하는 행동 중 하나이다. <그림 10>의 사해는 안대를 착용함으로써 시각의 차단, 즉 세상과의 단절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안대에 눈물 흘리는 눈모양의 자수는 슬픔을 상징한다. 만약 안대로 두 눈을 가리지 않았다면 <그림 10>의 사해가 바라보게 될 것은 슬픔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11. <사해의 빛_존중> 한지에 채색, 40×40cm, 2013

매튜 매케이(M. Mckay)는 자존감을 자신의 가치를 가늠하는 기준 좋은 감정으로 정의했다. 그는 사람과 동물이 구분되는 주요인이 바로 자각에 의하여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치를 부여된다고 주장했다(Matthew Mckay & Patrick Fanning, 1996)³¹⁾.

결국 자기 존중감이란 자기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림 11>의 ‘사해의 빛_존중’은 자신에 대한 존중(尊重)감을 표현한 그림이다.

31) Matthew Mckay & Patrick Fanning. 홍경자, 유정수 역. (1996) 『나를 사랑하기 : 자기 존중감 향상법』. 서울 : 교육과학사, p.13.



그림 12. <사해의 빛_반성> 한지에 채색, 40×40cm, 2013

<그림 12>의 ‘사해의빛_반성’은 사해가 고개를 숙이고 반성(反省)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로크(L. John)³²⁾는 감각이 외적 대상에 대해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의식의 내적 움직임으로 향해진 내부 감각을 반성이라고 하였다(철학사전편찬위원회 외 30인, 2009).³³⁾ 내부 감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화려한 한 색상이 아닌 담담한 색의 석채로 문양을 넣었다. 생각의 사고가 일어나는 머리를 강조하기 위해 사해의 머리가 강조되게 그렸다.

32) 로크(L. John)는 영국의 철학자이며 경험론 철학의 시조이다.(1632-1704)

33) 철학사전편찬위원회 외 30인. (2009). 『철학사전』. 중원문화

IV. 죽음에 내재된 생명(生靈)의 전망

4. 사해와 생명을 제재로 한 ‘생명의 전망’ 표현



그림 13. <당신에게 주다> 비단에 채색, 51×45cm, 2016

인간의 죽음이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다. 단지 한 육체의 끝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다. 한 육체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 한다. 꽂이 지면 열매가 맷듯이 언

제나 죽음 뒤에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 이렇게 꽃의 죽음에는 열매라는 생령이 내포되어 있듯, 모든 생명의 죽음에는 생령이 내포되어 있다. 그것이 비록 인간으로서의 생령이 아닐 지라도 그 무언가의 생령일 것이다.

생령을 표현하려고 시작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선악과였다. 첫 번째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죽음의 시작은 선악과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명령하셨다(창2:17). 그러나 간교한 뱀은 하와에게 물어 사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물었다.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창3:3) 말씀하셨다고 대답하자 뱀은 말하기를 너희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며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했다.(이기탁, 2004)”³⁴⁾

결국 에덴동산 안에서의 무한한 삶을 살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에덴동산 밖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나님께 고백 하였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렸다. 하와는 앞으로 출산의 고통을 받을 것이며, 남편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아담은 앞으로 평생을 배고픔에 시달리며 먹을 것을 힘들게 얻어야 한다. 그리고 끝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였다(마노 다카야, 2000).³⁵⁾ 최초의 죽음에 최초의 생령인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에덴동산 안에서의 아담과 하와와가 에덴동산 밖에서 선과 악을 아는 새로운 아담과 하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물리적 탄생과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측면의 죽음과 탄생을 말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갓 태어난 아기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던 아담과 하와는 뱀의 꿈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는 것을 선택했다. 이것은 더 이상 수동적인 삶의 자세가 아닌 능동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본인은 에덴동

34) 이기탁. (2004). 『자유의지에 대한 研究 :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심으로』 . 안양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0.

35) 마노 다카야. (2000). 『낙원』 . 도서출판 들녘

산에서 추방당한 사건을 이전 정신의 죽음과 현재의 새로운 정신의 탄생으로 바라본 것이다. <그림 13>의 ‘당신에게 주다’는 죽음과 생령을 모두 품고 있는 의미의 선악과인 것이다.

<그림 5>의 ‘사해의 빛_성찰’에서 <그림 12>의 ‘사해의 빛_반성’까지의 작품들은 죽음의 긍정적인 이미지(죽음이 생령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는 긍정적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해에 장식적인 표현을 많이 하였다. 그러나 <그림 13>의 ‘당신에게 주다’에서는 사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다른 구체적 사물을 화폭 위에 구현함으로써 죽음과 생령을 분리하여 표현하였다. 문양을 통한 생령의 표현이 아닌, 구체적 사물을 통한 생령의 표현이다.

죽음과 생령의 구분은 사해와 선악과의 시각적 대비를 통해 표현하였다. 사해가 모노톤으로 표현된 것과는 대비적으로 선악과는 다양한 색감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다양한 색감을 높은 채도로 사용함으로써 강한 생명력이 느껴진다. 반면 사해에서는 강한 생명력 보다는 차가운 정적이 느껴진다. 사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선악과의 강한 생명력을 표현하기 위하여 안료는 굵은 입자의 안료를 사용하였다. 선악과에 석채를 가볍게 채색하여 은은하게 빛이 감돌게 표현했다. 은은한 빛이 감돌면서 선악과에는 생령의 빛이 더욱 감도는 느낌이 든다. 반면 사해의 차가운 정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하여 호분 대신 매우 고운 입자의 티타늄화이트를 사용하였다.

<그림 13>의 ‘당신에게 주다’는 사과를 들고 누군가에게 건네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처음 시선을 끄는 곳의 톤을 무겁게 시작하여 시선이 끝나는 곳의 톤을 가볍게 처리하였다. 단색의 배경이 주는 딱딱한 느낌이 사라졌다. 사해가 배경의 톤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배경이 살짝 비치듯이 채색하였다. 사해의 적당한 무게감을 위하여 얇게 여러 번 칠하였다. 얇게 여러 번 칠하는 효과는 눈에 보일 정도는 아니어도, 미세한 얼룩을 겹겹이 만들어 얇아 보이는 채색도 견고해 보이게 한다. 시선의 흐름에 따라 배경 톤을 맞추고, 소재에 맞게 안료를 사용함으로써 효과적인 표현이 가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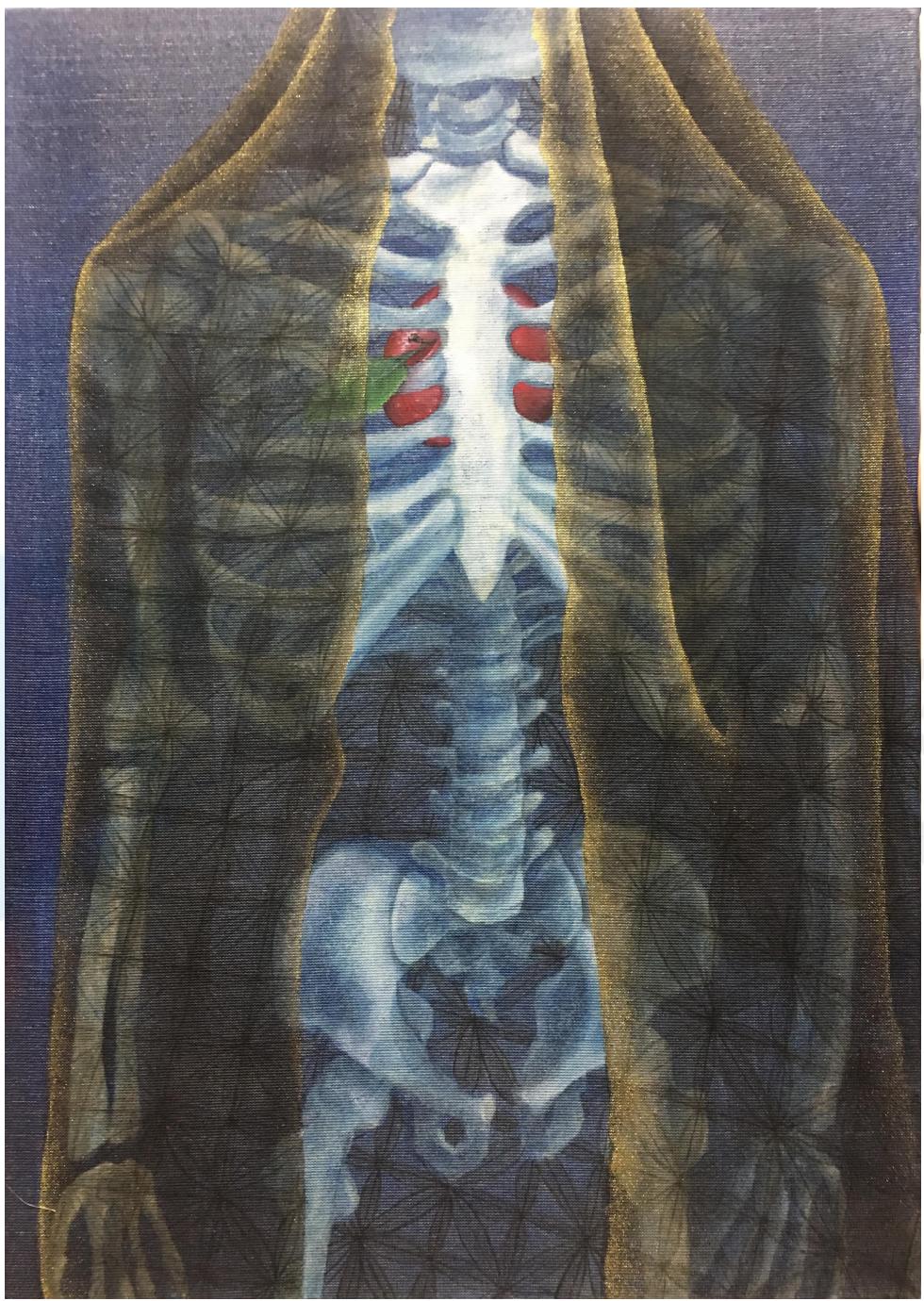


그림 14. <나에게 품다> 비단에 채색, 63×45cm, 2016

<그림 14> ‘나에게 품다’는 선악과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해를 표현하였다. 심장의 위치 가까이에 자리한 선악과는 사해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다. 생명력의 원동이 되며 단순히 신체를 구성하는 부분 이상의 의미를 가진 심장(송유진, 2016).³⁶⁾ 가까이에 자리한 선악과는 사해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다. 반면 사해를 덮고 있는 검은색 포(袍)는 생명을 거두어가는 저승사자의 모습을 연출한다. 죽음을 상징하는 저승사자의 모습을 한 사해가 생령의 상징인 선악과를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다. 결국 죽음과 삶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삶과 죽음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표현했다.

청창옷 젖쳐매고 쇠파랑이 숙여 쓰고
팔뚝 같은 우라사시 손에들고
배자여차 품에 품고 청사슬 비껴차고(서울새남굿보존회, 1996)³⁷⁾

청창옷은 일종의 포(袍)를 말한다(박주리, 2012).³⁸⁾ 이처럼 과거 저승사자의 모습을 묘사한 글들을 찾아보면 저승사자는 포를 뒤집어쓰고 있다. <그림 14>의 ‘나에게 품다’에서는 저승사자의 포를 표현하기 위하여 고려불화에 자주 등장하는 하얀색 사라를 검은색 사라로 표현하여 저승사자의 포로 연출하였다. 검은색 사라의 밝은 부분을 금니로 바림 하여,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 보다는 고귀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였다.

심장의 위치 가까이에 자리한 선악과는 붉게 물든 홍옥의 사진을 참고하며 그렸다. 붉은색은 일반적으로 생명을 상징한다. 이것은 온 몸에 퍼져있는 혈액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송유진, 2016).³⁹⁾ 심장이 내보내는 혈액이 생명 연장의 원동력이 되듯이, 생령의 상징인 붉은 선악과가 내보내는 생명력이 사해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시들지 않은 싱싱한 초록색 잎사귀는 붉은 선악과의 생명력을 더욱 강해보이게 한다.

36) 송윤진. (2016). 『심장과 폐 이미지를 이용한 조형 표현』 .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3.

37) 서울새남굿보존회. (1996). 『서울새남굿 신가집』 . 서울: 문덕사. p.162.

38) 박주리. (2012). 『한국 저승사자 연구 = (A) study on guardians(jeoseungsaja) of the Korean otherworld』 .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87.

39) 송윤진. (2016). 『심장과 폐 이미지를 이용한 조형 표현』 .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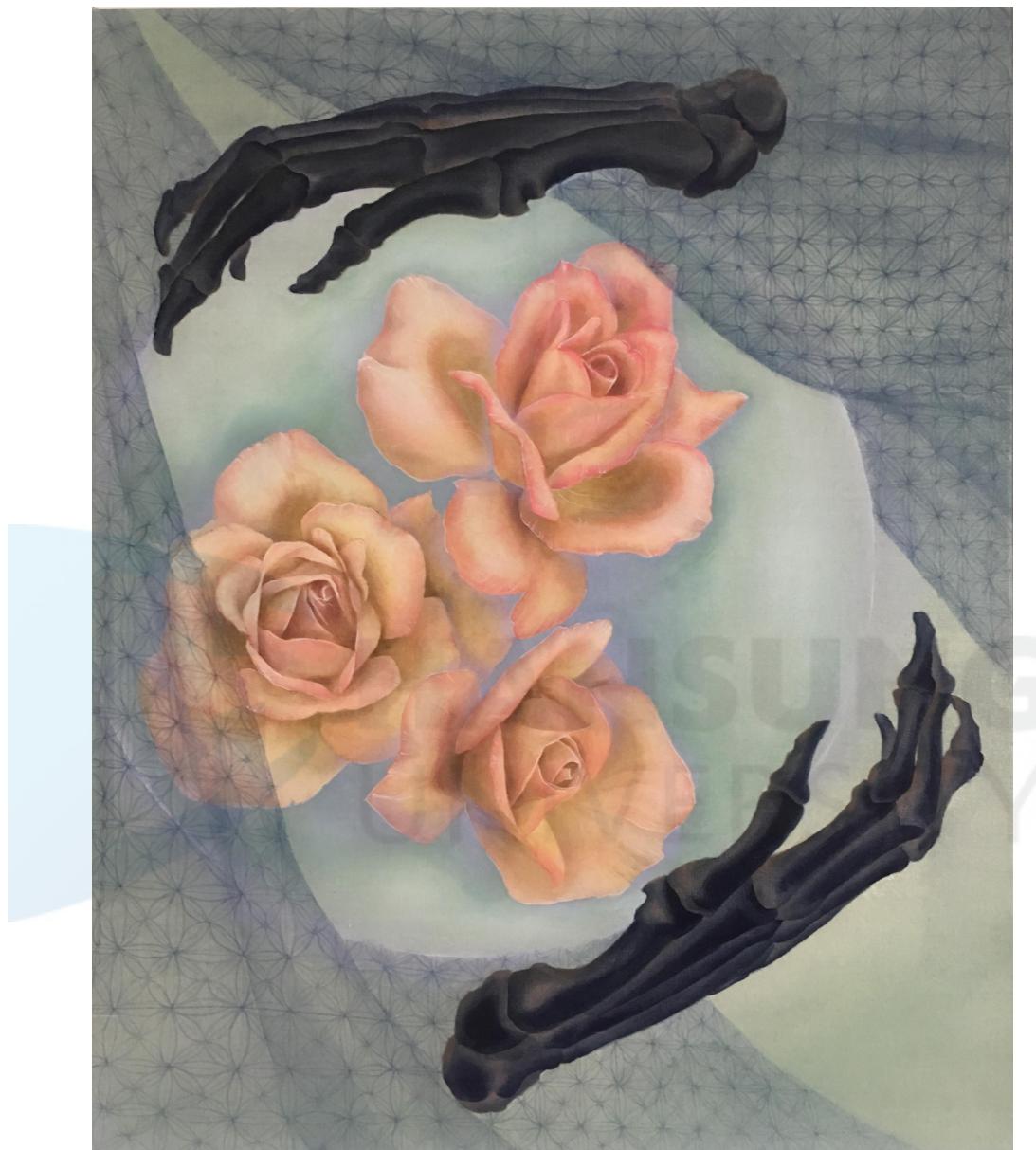


그림 15. <생령을 안아> 비단에 채색, 45×55cm, 2016

“장미는 꽃의 의미를 넘어서 종교적으로나 세속적으로나 인간의 문명에 자리 잡아 관상용 식물이 아닌 그 이상의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장미는 예전부터 사랑의 상징으로 복합적이며 모순된 의미를 가져서 천상적인 완전성과 지

상적인 정념을 나타낸다(황미정, 2009).⁴⁰⁾ 이처럼 천상적인 완전성과 지상적인 정념을 상징하는 장미는 생령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생령의 상징인 장미를 죽음의 상징인 사해가 부드럽게 감싸 안은 모습은 마치 아이를 감싸 안은 엄마의 모습과도 같다.

<그림 15>의 ‘생령을 안아’에서는 생령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탄생’을 살구 빛깔의 장미로 표현하였다. 생령을 부드럽게 감싸 안은 사해는 깊은 바다색으로 표현하였다. 깊은 바다를 담은 색이지만 생령을 품어주는 따뜻함이 느껴지는 색이다. 죽음이 새로운 탄생의 밑거름이 되는 현상을 사해가 생령의 알을 품어 부화시키는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인간의 피부 색깔과 비슷한 살구 색 장미꽃잎에 홍조 떤 볼을 연상하듯 장미꽃잎 끝을 분홍빛으로 바림 하였다. 반면 생명의 깊은 바다색의 사해가 차갑게 느껴지지 않도록 대자로 일부분 겹칠 하였다. 생령으로써 장미가 풍기는 향과 빛을 표현하기 위하여 장미 주변에는 연보라색 분채로 바림을 하였다. 그리고 알을 상징적으로 둑근 구슬처럼 표현하였다. 연약해 보이는 장미와는 달리 사해의 두 손은 매우 단단해 보인다. 단단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비단 앞쪽의 장미보다는 비교적 많은 양의 분채를 사용하였다. 반면 장미는 염료계통의 안료를 사용하였다. 장미와 사해의 밀도를 맞춰주기 위해 장미 채색의 마무리로 석채와 분채를 아주 소량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생령의 상징인 장미가 죽음의 상징인 사해의 두 손에 품어지는 모습을 따듯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잔잔한 바람에 흘날리는 사라를 그려주었다. <그림 14>의 ‘나에게 품다’에서 표현된 것처럼 무거운 느낌의 사라가 아닌 봄바람에 흘날리듯 가벼운 느낌의 사라로 표현하였다. 사라의 색은 사해의 색과 같은 색을 사용하였다. 같은 색을 사용함으로써 사라가 사해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또한 흰색과 같은 밝은 색상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장미에 더욱 시선이 집중되게 되었다.

40) 황미정. (2009). 『장미패턴에 의한 감성적 floral textile design 연구 = A Study on rose pattern in a flower textile sensibility』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6.



그림 16. <달빛 스며> 비단에 채색, 63×45cm, 2016

달은 차오르면 기울고, 기울면 차오른다. 달은 끊임없이 차고 기우는 것을 반복한다. 탄생과 죽음도 이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반복된다. 달빛이 가득한 만월은 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생령과 같고 달빛이 거의 가려진 초승달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인간의 삶과 같다.

탄생과 죽음의 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달은 생령인 동시에 죽음이다. <그림 16>의 ‘달빛 스며’에서는 죽음과 탄생을 사해와 터키석 팔찌로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터키석 팔찌의 구슬은 만월의 모습과도 같다. 또한 터키석 팔찌의 푸른 빛깔은 ‘푸르른 달빛’으로 종종 묘사되던 달의 빛깔과도 흡사하다.

<그림 16>의 ‘달빛 스며’는 모든 것을 달빛으로 적셨다. 강물에 비친 달빛을 만지는 사해의 손끝을 시작으로 사해의 손목에 걸려있는 푸른 터키석 팔찌까지 달빛으로 물들고 있다. 달빛을 받아 오묘한 빛을 발산하고 있는 터키석 팔찌는 생령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한 것이다. 생령이 가지고 있는 오묘한 빛을 터키석에 비유한 것이다. 강에 비친 초승달과 사해의 손끝이 닿아있는 모습을 통해 죽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강에 비친 초승달빛을 통해 탄생과 죽음을 서정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16>의 ‘달빛 스며’에서는 고요한 분위기속에 가득 스며있는 초승달빛을 표현하기 위하여 배경 곳곳에 대자와 등황(橙黃)으로 바림 하였다. 조금 더 밝은 초승달빛을 표현하고 싶은 곳에는 가장 고운 호분의 미립자만을 추출하여 얇게 채색하였다. 푸른 터키석 팔찌에 초승달빛이 스며든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석채를 소량 사용하였다. 본 논문 앞부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빛을 난반사하는 석채의 특성은 은은한 빛깔을 표현하기에 좋다. 마지막으로 서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먹을 사용하여 전체 톤을 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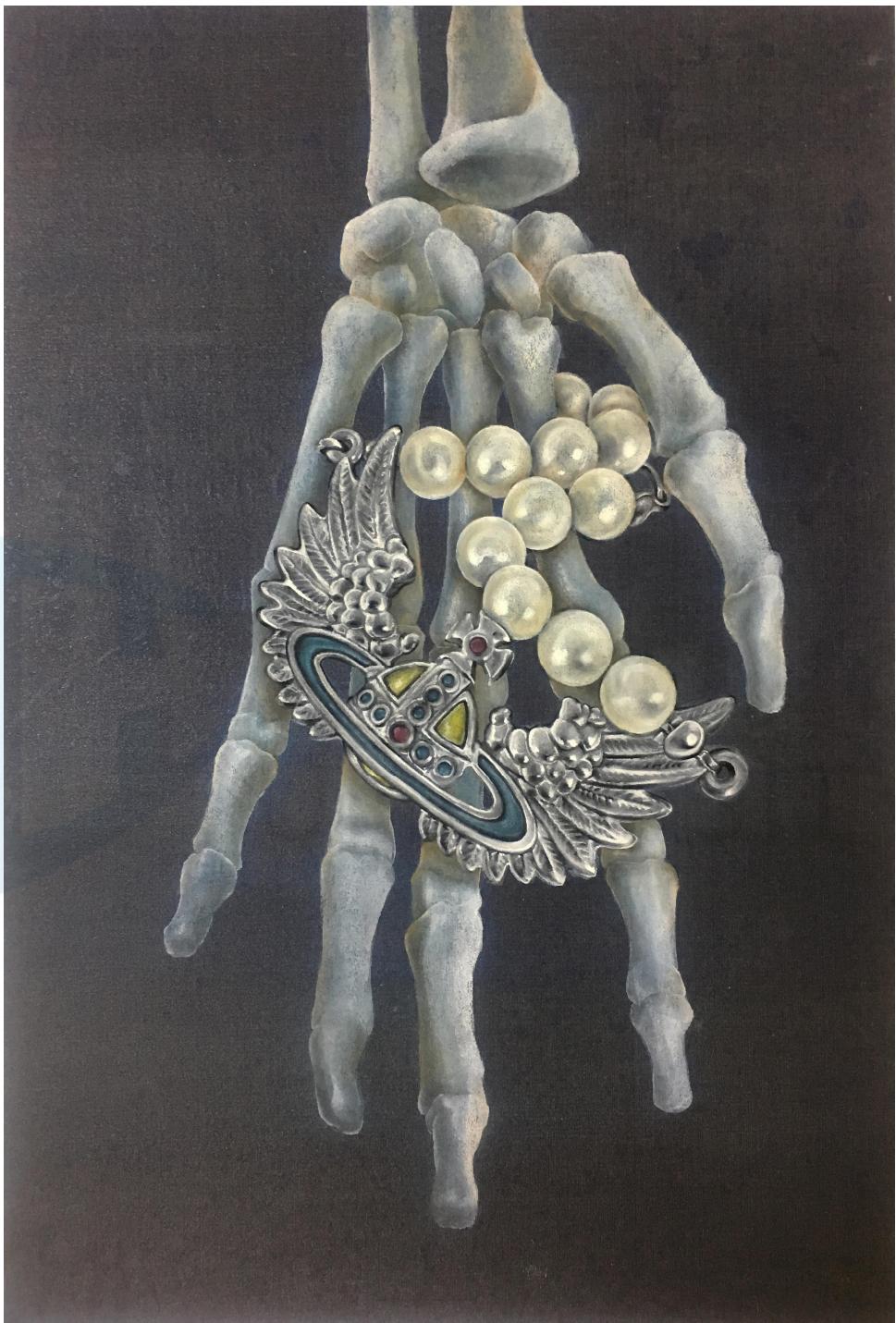


그림 17. <전하다> 비단에 채색, 63×45cm, 2016

<그림 17>의 ‘전하다’는 사해가 비비안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⁴¹⁾ 팔찌를 들고 있다. <그림 13>의 ‘당신에게 주다’와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비비안웨스트우드 팔찌를 전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 팔찌는 본인의 청소년 시절 낭만이 담겨 있는 브랜드의 제품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생령을 표현하는 재재로 선택되었다.

비비안웨스트우드는 우주의 아름다움이 있다. 그런데 타탄체크와 어울려졌을 때는 오묘한 느낌이 있다. 우주의 신비가 있는 듯싶다가도 영국 왕실이 떠오르는 타탄체크는 상당히 모순적이다. 자유분방함과 규격화된 아름다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것들의 어울림. 이것은 나에게 환상을 세계를 열어주는 것 같다. 아... 비비안웨스트우드는 너무 예쁘다. 가지고 싶다.

2003년 9월 <작업노트> 발췌

<그림 17>의 ‘전하다’에서 비비안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의 팔찌를 재재로 사용한 이유는 위의 <작업노트>에서 발췌한 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연구자의 청소년 시절 비비안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라는 브랜드에 대한 낭만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추억의 팔찌를 그림의 소재로 선택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세월이 느껴지도록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 방법으로 진주를 백색이 아닌 상아색으로 표현하였다. 상아색이 감도는 따뜻한 흰색을 표현하기 위하여 백색 안료는 호분을 사용하였다. 따뜻한 계열의 백색 안료로는 백토도 있는데, 조개껍질을 원료로 하는 호분이 진주와 의미상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백토 대신 호분을 선택했다. 비비안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의 에블럼(emblem)은 차가운 금속성질 표현하기 위하여 티타늄화이트를 기본 채색으로 하였다. 또한 비비안웨스트우드 특유의 빈티지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스테인레스 광도 보다 조금 더 어두운 광도로 표현하였다.

41)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로고는 십자가가 달린 푸른 구슬 모양이다. 비비안웨스트우드의 ORB는 전통을 링은 미래를 의미한다. ‘전통을 살려 미래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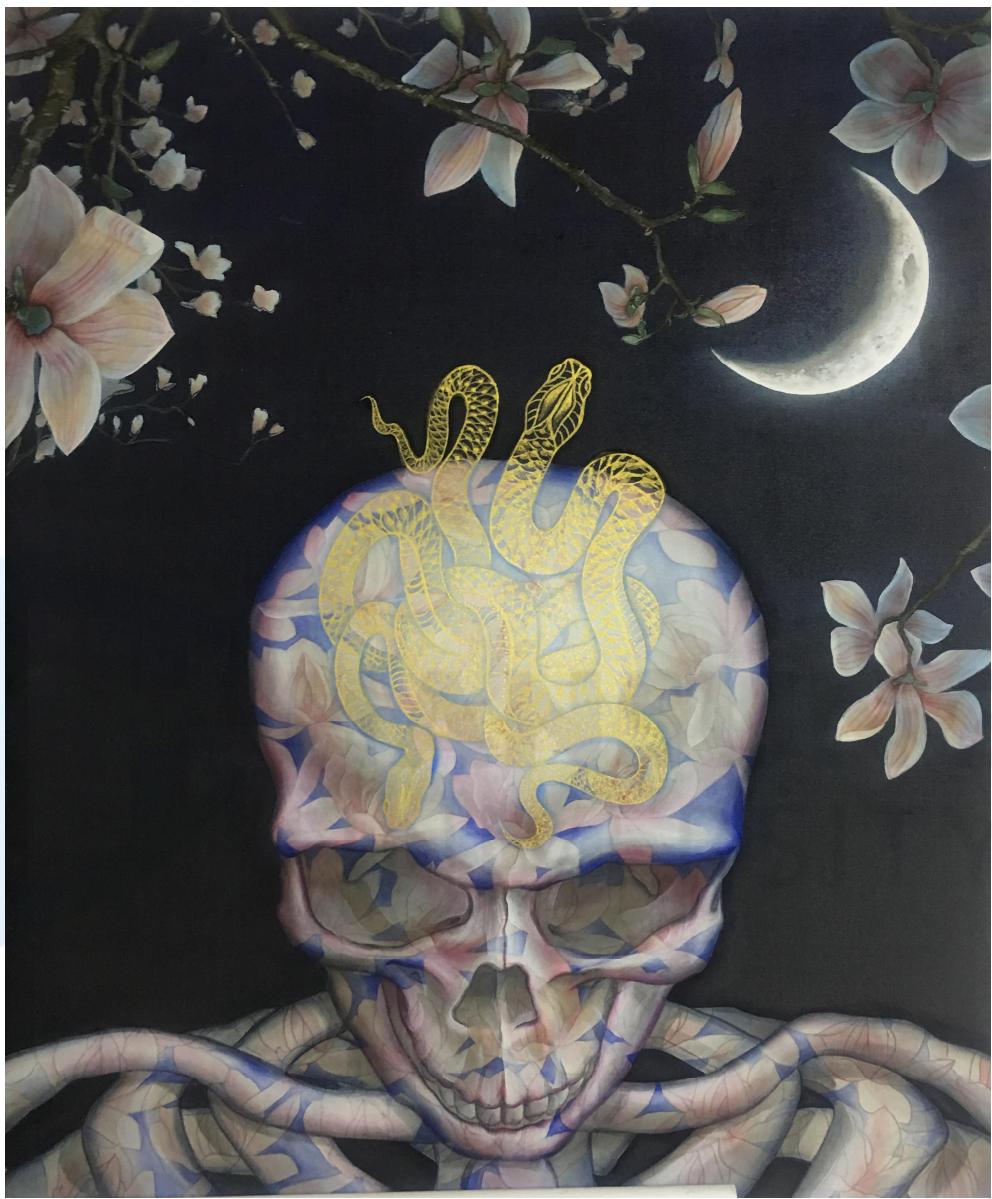


그림 18. <달과 꽃에 사해를 적셔> 비단에 채색, 57×50cm, 2016

<그림 13>의 ‘당신에게 주다’에서 <그림 17>의 ‘전하다’까지는 생령을 사해하는 구분되는 다른 제재를 선택해서 표현하였다. 그러나 <그림 18>의 ‘달과 꽃에 사해를 적셔’에서는 생령과 사해를 하나의 존재로 표현했다. <그림 13>에서 <그림 17>까지가 생령과 사해가 하나가 되가는 과정이었다면 <그림

18>은 생령과 사해가 하나가 된 모습인 것이다.

<그림 18>의 생령은 본래 달빛을 머금은 목련이었다. 달빛을 머금은 목련을 바라본 사해에게 생령의 아름다움이 스며들었다. 생령의 아름다움은 사해를 죽음에서 탄생에 이르게 한다. 사해의 머리 위치에 있는 뱀은 실재하는 뱀이 아니다. 생령을 받아들인 사해가 만들어낸 허상의 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뱀을 수호신으로 믿고 숭배하는 경우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뱀은 성장할 때 허물을 벗는다. 그것이 죽음으로부터 매번 재생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라는 인식을 낳게 한 듯하다(양윤영, 2004).”⁴²⁾

이처럼 한국에서의 뱀은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재탄생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또한 중국에서는 뱀이 음양의 조화를 상징하기도 한다. 결국 <그림 18>에서 사해가 만들어낸 뱀은 죽음과 탄생의 어우러짐을 상징한다. 죽음과 탄생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두 마리의 뱀이 서로 얹혀 있게 그렸다. 한 마리의 뱀은 땅을 향하고 있고, 다른 한 마리의 뱀은 하늘을 향하고 있다. 땅을 향하고 있는 뱀은 탄생을 의미하고 하늘을 향하고 있는 뱀은 죽음을 의미한다.

42) 양윤영. (2004). 『제주도의 뱀 상징 무속신화를 주제로 한 유리조형 연구 = (A) study on glass arts focusing on the snake symbol myth in Cheju Island』 .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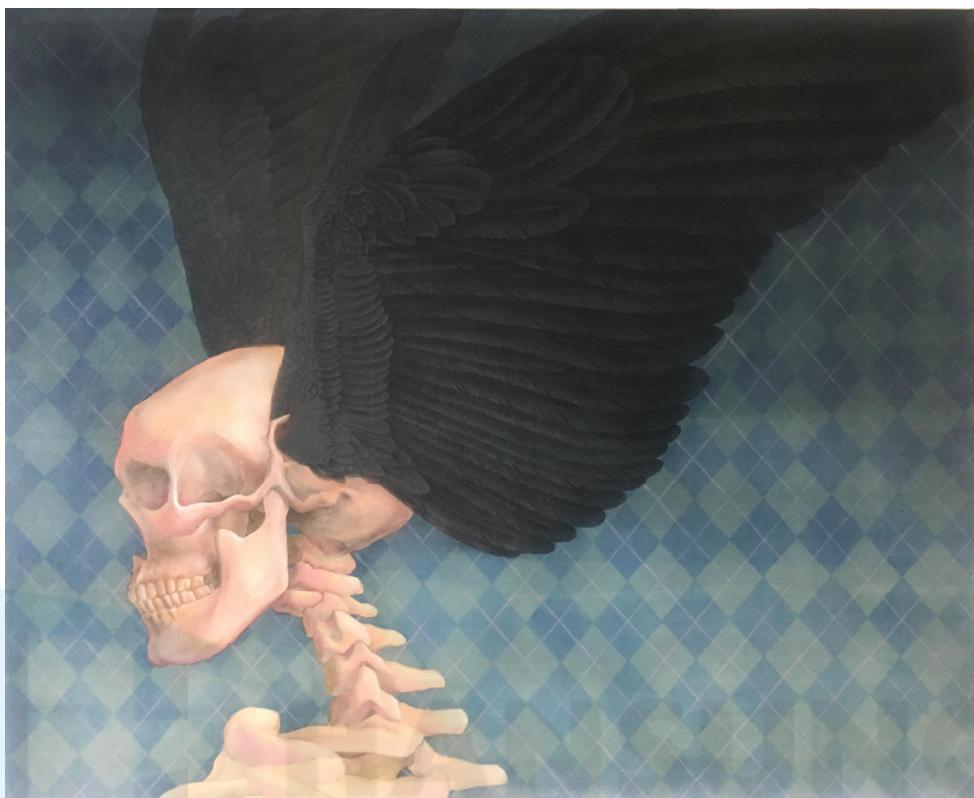


그림 19. <천공의 빛> 비단에 채색, 60×73cm, 2016

‘죽음의 의미 표현 연구’의 최종 작품으로 <그림 19>의 ‘천공의 빛’은 생령과 사해가 완전히 하나가 된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비 생명체인 사해가 음과 양의 대조적인 속성을 품고 생명체가 된 모습이다. 생령을 가지게 된 사해의 탄생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자유의 상징인 날개를 통해 표현하였다.

죽음을 내포한 생령의 상징인 날개는 밤의 색인 검은색을 사용하고, 생령을 내포한 죽음의 상징인 사해는 낮의 색인 호분 섞인 노랑과 빨강을 사용했다. 날개의 검은색이 밝은 사해와 부조화를 이루지 않게 하기위해 분채는 배채에만 사용하고 비단 앞에서는 먹으로 살짝 바림만 하였다. 반면 날개에 비해 사해가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게 하기위해 분채와 호분을 비단의 앞과 뒤에 모두 채색하였다. 색의 채도와 명도에 따라 안료의 입자크기를 조절하여 사용함으로써 대비되는 두 색을 사용하여도 조형적 부조화가 이어나지 않았다.

V. 결 론

필자는 죽음을 목격하기 전까지 죽음은 언제나 슬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10년 넘게 키우던 강아지의 죽음을 목격하고 이전까지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죽음은 죽음을 경험하는 경험자의 슬픔이 아닌, 죽음을 바라보는 타인의 슬픔인 것이다. 그렇다면 죽음을 경험하는 객체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 시키는 탄생의 씨앗이다. 아름다운 꽃의 죽음은 과실의 탄생을 야기하고, 과실의 죽음은 새싹의 탄생을 야기한다. 이처럼 죽음은 소멸과 동시에 생성을 내포한다(이시우, 2013).⁴³⁾반대로 탄생은 생성과 동시에 소멸을 내포한다. 본인의 연구 작품에서는 죽음에 내재된 탄생의 씨앗을 ‘생령’이라고 정의하였다.

필자는 죽음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바꾸기 위하여 ‘죽음의 의미 표현 연구’를 하였다. 그 방법으로 죽음의 상징인 ‘사해’를 제재로 선택했다. ‘사해’를 슬픔과 두려움의 대상으로 표현하지 않고 아름답고 고귀한 대상으로 표현하였다. ‘사해’를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하여 화려한 문양을 넣거나, 아름다운 소재를 함께 그리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사해’를 고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전통 채색기법인 진채를 활용하였다.

‘사해’를 외면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단계를 넘어 ‘사해’의 외면과는 상관없이 죽음을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로 표현하려 하였다. 그러나 ‘사해’에 있던 장식성이 ‘생령’에게 옮겨간 것 뿐 큰 변화는 생기지 않았다. 연구자 본인은 외면의 장식성에만 의존 하지 않고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아름답고 고귀하게 느끼도록 화폭에 옮길 것인지 ‘죽음의 의미 표현 연구’를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43) 이시우. (2013). 『주역의 사생관(死生觀)에 관한 연구』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pp.102-103.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마노 다카야. (2000). 『낙원』 . 도서출판 들녘.
- 배영기. (1992). 『죽음학의 이해』 . 서울: 교문사.
- 서울새남굿보존회. (1996). 『서울새남굿 신가집』 . 서울: 문덕사.
- 오진탁. (2007). 『마지막 선물』 . 세종서적.
- 정지영, 홍재성. (2003) 『프라임 불한사전』 . 두산동아, p.2682.
- 지그문트 프로이트(S. Freud), 정장진 역. (2003). 『예술, 문학, 정신분석』 . 열린책들
- 철학사전편찬위원회 외 30인. (2009). 『철학사전』 . 중원문화.
- 필립 아리에스. (1983). 『죽음의 역사』 . 동문선.
- 필립 아리에스(P. Aries), 고선길 옮김. (2004). 『죽음 앞의 인간』 . 새물결.
- 할 포스터, 전영백과 현대미술연구팀 옮김. (2005). 『욕망, 죽음 그리고 아름
다움』 . 아트북스.
- Matthew Mckay & Patrick Fanning. 홍경자, 유정수 역. (1996) 『나를 사
랑하기 : 자기 존중감 향상법』 . 서울 : 교육과학사.

2. 학위논문

- 박주리. (2012). 『한국 저승사자 연구 = (A) study on guardians(jeoseungsaja)
of the Korean otherworld』 .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현. (2015). 『죽음 이해의 유형론 중 기독교적 죽음 이해 연구 : 기독교적
장례를 위한 제언』 .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윤진. (2016). 『심장과 폐 이미지를 이용한 조형 표현』 . 홍익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 논문.

- 양윤영. (2004). 『제주도의 뱀 상징 무속신화를 주제로 한 유리조형 연구 = (A) study on glass arts focusing on the snake symbol myth in Cheju Island』 .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
- 오세미. (2013). 『유한함의 공포: 재현 불가능한 이미지의 재현』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재빈. (2016). 『정조대 궁중회화 연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기탁. (2004). 『자유의지에 대한 研究 :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심으로』 . 안양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미연. (2014). 『화성원행을 묘정리의 궤 반차도 연구』 . 경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시우. (2013). 『주역의 사생관(死生觀)에 관한 연구』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복란. (2001). 『현대 한국 사회의 <죽음> 대응. 양상에 관한 사회학적 고찰 : '장례식'의 변화와 '<죽음>의 처리'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의숙. (2016). 『화성원행도 병에 나타난 꽃장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raditional flower through Folding Screen King Jeongjo's Procession to his farther's tomb』 .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미정. (2009). 『장미 패턴에 의한 감성적 floral textile design 연구 = A Study on rose pattern in a flower textile sensibility』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 expression of death: Focusing on the expression of the bone using the traditional deep-color pigment technique

Choi, Jung-Yeon

Major in Oriental Painting and

True Colored Fainting

Dept. of Painting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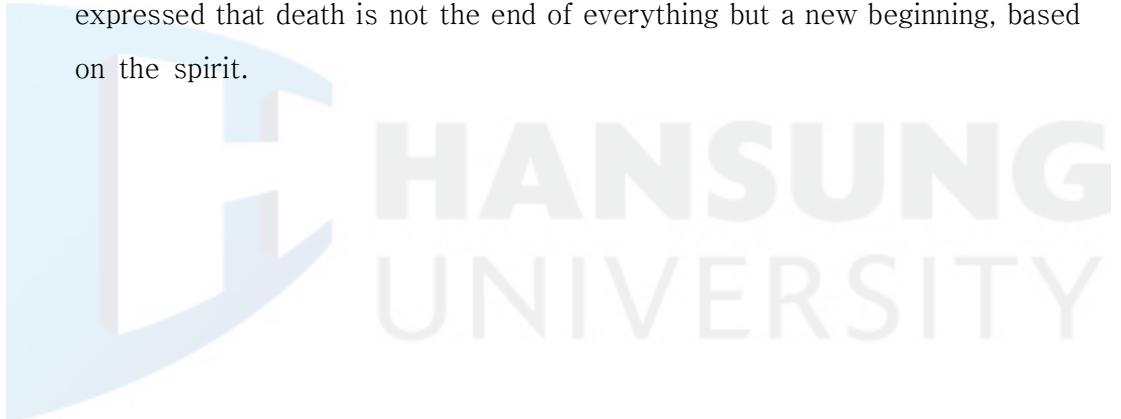
People's perception of death varied. Among them, human deaths are viewed as negative in Korea, where atheism is universal. Is death really a negative being? This work begins with a new perception of death, forgetting the existing conventions about death.

Most philosophers had recognized death as a positive being. Typically, the oriental philosopher 'Zhuang Zai' said that death is equivalent to life. If life is a negative being, death is also a negative being. This work expresses that life and death are not different from each other, by using the bone as a material.

The study on meaning expression of death based on the bone is carried out through four stages of awareness, formation, transformation, and prospect

of death. In 'perception of death', realistic expression with black and white is used to keep the view as objective as possible. From the stage of 'perception of death', the work is expressed with traditional deep-color pigment technique.

If 'perception of death' is to objectively observe death, 'formation of death' is to establish what it have been objectively viewed so far. 'Transformation of the death' is divided into internal transformation and external transformation. The internal transformation is expressed with the funeral ceremony as a traditional banquet, and the external transformation is expressed visually beautifully with the bone. It is attempted to change the perception of the work as 'positive' from 'negative'. Finally, in "prospect of Death," the work expressed that death is not the end of everything but a new beginning, based on the spirit.



[Keyword] Death, bone, Awareness of death, Formation of death, Transformation of death, spirit, Traditional deep-color pigment technique